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록과 성경, 12차, 신약성경의 특별 계시, 성육신, 요한, 세상의 빛, 생명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신약의 특별 계시, 성육신, 요한, 세상의 빛, 생명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과 성경의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특별 계시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수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개념은 1장에서 소개됩니다. 그것은 9장 전의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인 것 같지만, 그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눈먼 태생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는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밝힙니다.

그는 실제로 8장에서 같은 것을 밝혔습니다. 8:12에서 그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연속성을 위해 언급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8:12에서 그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9장에 이 주제에 대한 큰 내용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눈이 멀었던 것이 어머니의 죄에 대한 처벌이거나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가해진 벌이라는 신화를 즐겼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그는 땅에 침을 뱉고 흙과 침을 섞은 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는 만지셨고 그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로암 못에서 씻은 후 처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 네 번째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추측하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웃게 만든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가 그 남자라고 계속 말했다고 한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확신하지 못해요. 아니, 하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말해요.

눈은 어떻게 뜨고 있나요? 그러고 나서 그는 진흙과 씻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이 남자를 심문하기 위해 데려옵니다. 그는 노먼 빈센트 필의 친구를 사귀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직설적이고, 때때로 그들에게 무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둔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존은 아이러니와 심지어 유머를 사용합니다. 전직 맹인이 통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봅니다. 오, 그들은 그가 토요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구약성서는 눈먼 사람을 고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적했듯이, 눈먼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은 뛰어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초반에는 토요일에 논란이 되는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하게 했고, 모기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것, 안식일 규칙을 너무 강조해서 그들만의 메시아를 놓치는 것, 그리고 낙타를 삼키고 메시아를 놓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도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규칙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강경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도발했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전통을 모순했고, 더 많은 것을 모순했으며, 마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17절에서 그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남자를 심문합니다.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이미 퍼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과정을 수강했어요. 오, 세상에.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로 그 남자를 불렀고, 그건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비록 내가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보인다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슬프게도 웃기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전직 시각 장애인이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죠? 그는 그저 그들을 미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들은 그를 욕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 확신합니다. 30절, 이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있고 거기서 나와야 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고, 예수를 완전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나온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당신은 그냥 저를 그에게 가리켜 주었습니다.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그를 가리켜 주세요. 나는 그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고, 그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 세상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모르지만, 그는 내 눈을 뜨게 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신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고, 제자들이 의심하고, 제자들이 받아들였고, 예수가 이 장의 앞 구절에서 바로잡은 신화를 지지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쫓아냈고, 아마도 회당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종교적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듯이, 예수께서도 눈먼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비추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연민을 나타내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선생님? 아마 여기서 주님을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그를 보았고,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신약으로 다시 읽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제 그는 신이며, 그는 경배받을 만한 존재이고, 토마스는 나중에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절박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나 가까운 친구의 치유를 구하기 위해 절을 하겠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그게 당신이 예배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기독교 예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놀랍죠.

오, 제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는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불쌍한 제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제 당신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이 눈멀게 하려고요. 언뜻 보기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눈이 멀게 하려고요. 예수가 누군가를 눈멀게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풀은 마법사로 임시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특이하죠. 아니요.

그래서 언어는 영적인 것입니다. 나는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접촉할 때 영적인 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눈먼 사람은 육체적 시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빛, 세상의 빛으로, 그를 떠나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서 확증되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진실에 열려 있지 않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 예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서 예수를 만난다. 그는 제자리에 앉는다. 7장에서 산헤드린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예수를 옹호한다.

19장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구세주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곁에 있던 바리새인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눈먼 건가요? 그들이 눈먼 것을 인정한다면요.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사악한 눈먼 사람처럼 폭도들을 판단하는 우월한 영적 선견자들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 당신의 빛 속에서 우리의 눈먼 것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눈먼 이라면, 당신의 영적 필요를 보았다면, 나는 비유를 바꿔서, 내 사역의 빛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우리가 본다고 말했으니, 그들이 세상의 빛을 거부함에 따라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당신의 어둠은 더 어둡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이 그 장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또한 12장에서 빛이 슬프게 물러나는 것을 봅니다.

12장에서 예수는 그의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서론에서 이미 말했듯이, 1장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주된 반응은 빛에 대한 성육신이고, 주된 반응은 거부입니다.

12장은 처음 12장, 가장 우세한 반응, 거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0, 30, 31장의 진술의 목적은 요한복음 12장의 이 진술과 평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빛이 너희 가운데 잠시 더 있으리라

빛이 있는 동안 걸으라. 어둠이 너를 덮치지 않도록.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기억하라, 그들에게는 가로등이 없었다.

아직 토마스 에디슨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서 숨으셨습니다. 영국의 학자의 요한 복음에 대한 유명한 주석 중 하나인데, 지금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섹션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물러나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 20, 31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저 말씀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저 말씀을 이 말씀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37 , 그가 그들보다 먼저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유사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표적, 그들 앞에 표적, 특히 유대인과 지도자들 앞에 표적, 제자들 앞에, 12:20, 30, 31. 목적 진술은 그들이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큰 표적은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나사로에 대한 사형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11장에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12장에서 나사로에 대한 사형 선고로 내렸습니니다.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을 차단했고, 그들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요한은 52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주님의 종의 위대한 노래, 53장의 종의 노래의 시작입니다. 주님, 누가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사야는 다시 말했듯이, 그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6장으로 돌아가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의 신현은 그리스도 현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 이전의 아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것들을 보았는데, 그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카이아즘이 있습니다. A는 38절의 이사야 52, 5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B는 40절의 이사야 6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B prime는 41절 a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높고 높이 들렸고, 만군의 주님은 주 예수님이시며, 성육신 전이셨고, 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B prime입니다. 즉, A prime입니다. 실례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53장 52:12에서 53:13까지가 하나의 단위, 종, 마지막 위대한 종의 노래라는 신약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위자들도 그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불충분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헌신하지 않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네요

요한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텍스트의 차이에 따라 199회 또는 100회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중 6회는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거나 거짓되거나 부적절한 믿음의 예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믿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9장에서 눈먼, 전 눈먼 사람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적절한 믿음을 어떻게 식별하느냐는 그 말씀의 직접적인 맥락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위대한 계시, 특별한 계시입니다. 저는 목동들과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증거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건에 따른 삶과 사건에 따른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성육신에서 특별한 계시를 봅니다. 요한의 다른 주요 주제에서 예수는 계시자, 빛입니다.

그는 또한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미 6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글썬요, 우리는 1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는 말씀으로서 그 안에 거주하는 영원한 생명의 덕분으로 창조물에 생명을 줍니다.

그의 생명의 빵 담론의 일부로서, 글썬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표적, 빵과 물고기를 늘리는 것, 그리고 생명의 빵 담론을 결합합니다. 그 일부로서, 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생명의 빵이요, 물리적 빵이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지팡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생명의 지팡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영적인 생명의 떡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4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47 영생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시며, 일반 빵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 주고 생명의 지팡이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만나가 단지 예표로 지적했던 살아 있는 빵이신 예수님은 예표이시며, 빵이 육체적 생명을 제공하듯이 그분은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이 주제는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당신은, 오, 그가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할 때, 그는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는 목숨을 바칩니다. 요한복음에서 10장이 그 위대한 장소이지만, 아니, 제 말은, 목숨을 바치고 다시 취하는 자로서, 그는 선물로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14절.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이 선한 목자 담론에서 이 생명의 부어를 말합니다. 28절, 나는 내 양을 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27,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그것은 염소와 대조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미루게 할 셈이냐, 24절?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하지만 당신은 내 양들 중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강한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양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종류의 말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개념이 더 널리 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들이 그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선거에 대해 다룬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는 예수가 선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9장. 아버지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17장에서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그 장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행 정체성,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정체성. 당신은 내 양들 사이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기 그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요한복음 10:28.

저는 최근에 이런 종류의 언어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속담은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그가 쓴 책이 아직 출판되지 않았지만, 곧 나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모건의 체계적 신학 시리즈인 *Theology for the People of God*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슈라이너와 모건이 그 책을 공동으로 썼습니다. 저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였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강조된 부정입니다.

강하고, 매우 강하고, 가장 강한 부정. 그들은 결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십니다. 물론, 그는 아버지입니다 . 아들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아들은 종속되어 있지, 아버지는 아닙니다 .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두 구절에서,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다 , 에르윈. 이 잡아채기는 뭐야? 수년 전에 나에게 가르쳐 준 학생으로서, 존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덜한 예를 덮어씌운다. 그냥 가져간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물리적으로 잡아채지 못한다고 말한다.

악마는 당신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무도 당신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존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예수의 양과 목자를 분리하려는 가장 강력한 시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아버지는 양 을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30절).

요한복음 10:30은 예수와 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 문맥은 예수가 신학자들이 보존이라고 부르는 신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은 구원하시고, 신은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는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손과 아버지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와 그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11장 25절에서 그가 "나는"이라는 진술을 할 때 그것을 봅니다 . 당신의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방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좋은 유대인입니다.

그녀는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사야 25:26과 다니엘 12:2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 37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16편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압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날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1:24.

그러자 예수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전에 그는 말했습니다. 내 말은 영이고, 내 말은 생명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마르다의 이 아름다운 말을 좋아합니다.

네, 주님,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20장 30절과 31절의 목적 진술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 나사로의 소생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 나인의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는 데 사용된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사 등을 통해 이것이 소생이고 종말론적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아이디어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직 근동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지만, 자신의 부활과 마지막 날의 주 예수님과 그의 백성의 종말론적 부활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죽은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자 생명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생각에 따라 영이 사흘이나 사흘 동안 몸 주위를 맴돌았다는 생각에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 기간을 지나서 기다렸고, 죽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것이 마지막 원수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가 "저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 글썄요, 신이 그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가 신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건 틀렸어요. 사제들은 장례식을 치러야 하고,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는 울었어요.

오, 그는 그들의 불신에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울음꾼들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Mary와 Martha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친척이나 친구가 죽으면 당신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 그게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이고, 신이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원리적으로 그것을 이미 이루었고, 우리는 지금 필멸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것은 필멸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걸 좋아해요. 돌을 치우세요.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때쯤이면 냄새가 날 겁니다. 그는 죽은 지 며칠 됐거든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생명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한 복음에서 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사로도 이미 4일 전에 죽었습니다. 기절 이론은 나사로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 세상에.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99마리를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아버지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걸 보여줄 마지막 장소는 요한복음 15장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원이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5장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제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살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생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 참 포도나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진실이에요. 제 말은, 이스라엘은 거짓 포도나무였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였지만, 실패했어요.

요한 복음에서 매우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행자들에 비추어 볼 때, 구약의 선행자들의 성취, 그들의 절정이 그들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열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합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을 때를 예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충격적인 개념, 신약의 특별 계시는 우리 주 예수의 성육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들을 전에 없던 빛으로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시는 생명 주시는 자이며, 나사로를 소생시켜 자신의 부활의 징조로 부활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부활의 징조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은 곳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17과 18에서도 봅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9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38년 동안 마비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90장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쳤습니다. 여기서 그는 38년 된 마비 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권위자들의 도전을 피하기 위해 토요일에 고의로 그것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비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 참조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6:7,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가했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6:7.

저는 예수께서 토요일에 모든 치유와 다른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 안에서 참된 메시아를 발견한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비 환자를 고치신 후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걷는 것에 대해 그렇게 열광해야 합니다.

대신, 그들은 안식일에 그가 침대를 나르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 17과 18은 비판적입니다. 16.

글쎄요, 15, 그 남자는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자기를 고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 16.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더욱 애썼던 이유는 그가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맙소사. 하지만 그는 심지어 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신과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신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 하지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장에서, 17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신약보다 늦게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약의 사상과 개념에 빛을 비춰줍니다.

랍비들은 탈무드를 쓰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오래된 질문에 답하고, 농담을 하고, 온갖 일을 했습니다.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지혜를 포함한 많은 유대 문학의 혼합물입니다.

이 경우 유대인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네, 하지만 그는 최소한만 합니다.

이런 종류의 토론. 그리고 그들은 네 번째 계명의 저자이신 선한 주님 자신이 안식일을 존중하라고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특정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첫째, 유대인 아기들은 일주일 내내 태어났다. 그들은 토요일에 유대인 아기가 태어난 것이 다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니다를 의미한다.

신은 유대인 아기를 토요일에 세상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노인은 토요일에 죽었습니다. 같은 주장입니다.

신이 하셨어. 신이 그들을 데려갔어. 그들은 그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은 그가 일주일에 7일 동안 자신의 섭리를 행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토론을 하고, 이런 종류의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 종류의 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탈무드를 인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일들은 유대인 커뮤니티가 인정해야 할 일이에요.

신은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신은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그의 섭리의 일을 하시고, 일주일에 7일 그의 세계를 지탱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까지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7일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항하고 실제로 그의 이마에 총의 빛을 비추어 그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오, 그들은 그를 잡을 거야. 그들은 그것을 가져갈 수 없어. 왜냐하면 그는 절름발이의 치유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수준으로 두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먼 사람을 고친 건, 미안합니다. 절름발이를 고친 건, 사실은 눈먼 사람도 고친 건데요, 하지만 절름발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제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읽은 11장에서 마르다에 대한 말씀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네,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1127, 세상에 오실 분, 세상에 오실 분. 그것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아들, 아들, 사무엘하 7장, 이사야 9:6, 7. 우리에게 아들이 주어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들이 주어집니다. 그는 영원히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차지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목적 진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19장에서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복음서에 따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죄한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된 참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서, 죄송합니다.

참고문헌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요한복음 19:7이 아니라 17입니다. 요한복음 19:7, 빌라도는 반복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19:6, 예를 들어, 그를 데려다가 너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들은 할 수 없었고, 그럴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오, 그들은 스테반을 돌로 쳤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들은 이런 종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다시 그들의 법률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의 메시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 아이러니는 정당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율게 합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불법적으로, 부정확하게, 또는 부당하게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바울과 히브리서의 글에서 성육신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신약의 특별 계시, 성육신, 요한, 세상의 빛, 생명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